



한인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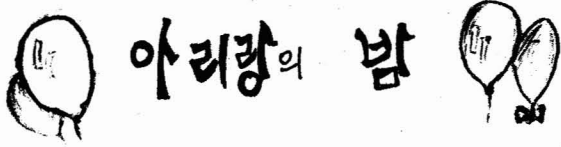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4093 Seattle, Wash. 98104
Sung Kil Kim Publisher
Editor

VOL. 3 NO. 8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DEC.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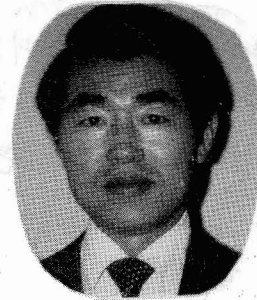


아리랑의 밤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과 망년을 가하여 와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춤과 음악으로 즐기는 "아리랑의 밤"을 금년에는 시택·모터·인(호텔)으로 정하고 오래전부터 그 준비를 서둘러 왔으나 보람도 없이 부득이 행사를 중단케 되었다.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토요일 휴일이 크리스마스과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어 준비에 여러가지 불편이 따랐다. 즉 12월 18일 토요일은 타코마에서 「한인의 밤」이 있고 12월 25일 토요일은 크리스마스날이 되어서 호텔에서 그 날은 공휴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러지만 한인회에서는 많은사람들이 직장을 쉬는 날에 행사를 해야만 모두가 참석 할수 있다하여 크리스마스 다음주 금요일인 망년일(12월 31일)로 그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추진해 오던중, 한국인 밴드들이 12월 31일은 "돈을 얼마를 지불한다 해도 그 날만은 명업상 "아리랑의 밤"행사에 나갈수 없다."고 세 곳(아리랑, 피이킹, 동양원) 모두 한 마디로 거절하고 있어 부득이 한국인 밴드의 흥겹고 구수한 맛을 볼수 없는 아리랑의 밤이 될것 같다. 그래서 준비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되었고 몇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에서 얻은 결론으로는 ① 시일이 맞지 않으며 ② 비용에 비하여 성과를 못 거둘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사를 그냥 넘기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게 되어 금년에는 오랜 전통을 깨트리고 아리랑의 밤이 없이 1977년을 맞게 되어 허전하다.



취임사

신임회장 김형진

먼저 지난 총회에서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회 발전을 위해 말하고 싶은것은 첫째, 여러 한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은 ① 회비를 모두 다 내시고, ② 한인회 활동에 참여하시고 또 서로 도와 주시고, 즉 자진해서 일해 주겠다는 마음과 실천을 바라며, ③ 장래를 바라보고 한인회관 설치를 위한 모금운동에 자진해서 도와 주시는것입니다.

한인회가 여러분의 기대와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회장, 임원, 이사들 만의 힘으로만 될수가 없아오니 많은 협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물러가시는 회장, 임원, 이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년간 시간과 비용을 쓰시면서 한인회 일을 맡아 주심테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뒤에서 말과 묵만 하는것 보다 앞에 나와서 자기자신 한인회 활동을 위해 도와 주는것이 발전을 위하고 한인회를 위하는 것으로 믿읍니다. 1977년도에 같이 힘쓰고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의 길을 걷기를 바라읍니다.

새해에 여러분과 가족에 많은 축복을 빕니다.

☞ 한인회 일을 돕고져 희망 하시는 남·여분은 회장 김형진 씨(932-359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Season's Greetings

「한인의 밤」 개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하여 성황을 이룬 「한인의 밤」은 종래 한인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아리랑의 밤」과 같은 성격의 침묵 프로로서 타코마를 중심으로 한 교민들이 연말을 기하여 한 자리에 모여 침묵을 도모해 보자는 데 1의의를 갖고 이 당구씨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날의 특별순서로서 한국 문화영화 (한미 우정)와 송춘희씨의 출연도 있게 된다고 한다. 장소와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 1976년 12월 18일 저녁 7시부터.
2. 장소 : 7241 So. Tacoma Way Tacoma, WA.
3. 입장료 : 성인 - \$ 2.50
아동 - \$ 1.00
노인 - 무료

주최 - 타코마 한인의 밤 추진 위원회

이창희 선생님께 박 대통령 표창

초대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 장노 직분을 맡고 계신 이창희 선생님은 1948년에 미국에 이민 오신 후 오늘날까지 한국 학생과 한국 선원등 지휘를 막론하고 기회만 있으면 한국사람들을 돕기에 여념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시다.

와싱턴 대학교 한국어 강사로도 재셨으며, 보잉 항공기 회사 화학 연구실 감사관으로 계사다가 정년 퇴직 하신 후 오즈음은 교회일에 바쁘시다.

1976년 1월 15일 한인회 임원회에서는 한인들을 위하여 많은 숭은 공을 세우신 80고령의 이 선생님을 금년도 공로 표창자로 정하고 한국 정부에 표창상장을 하달할바 지난 11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 표창장과 동백훈장을 상향 총영사관 최영사가 이 선생님 자택에서 유지 몇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전달식을 갖았는데 이날 표창을 받으신 이 선생님께서는 "별로 한 것도 없이 이러한 것을 받게 되니 부끄럽다."고 평소 겸손을 잊지 않으신다.

제 10회 정기총회 폐막.

1976년 11월 13일 롱스톤 회관에서 개최된 제 10회 한인회 정기 총회는 국민 의례식에 이어 김성길 회장의 "참여 하는 한인사회가 되어 주길 강조" 하는 개회사에 이어 1976년도 사업보고와 재정 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약 15분간의 휴식을 갖은 후 선거관리 위원장 (한 만섭씨)이 1977년에 일할 한인회 일꾼을 선출 하는 의사를 진행하였는데 회장에 김형진, 안병용 두 후보자 중에서 김형진 (James Kim) 후보가 우세한 득표로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이사 후보자 5명 중 오준걸, 김길량, 김창성 세 후보자가 이사로 당선되었으며 이준모, 한상기 양 후보는 신년도 이사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날 회장에 당선된 김형진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여러분의 협조 가운데서 발전하는 한인사회로 이끌도록 성심껏 노력하겠다."고 말 하였으며 이사로 당선된 오준걸씨는 "관심을 갖고 협동하는 회원들이 되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부회장에는 Mrs. Armstrong과 이종익씨가 당선되었으나 이종익씨는 개인 사정으로 금년에는 직분을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다고 계속 사양을 하여 오고 있다 한다.

이날 회의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어 10시 40분에 성공리에 모두 끝마치고 폐막되었다.

이민국 문제와 민원 업무 안내란.

시민권 신청인을 위하여 증명설때 알아두어야 할 점. 영주권을 받은 3년이나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사항을 보러 갈때 미국 시민 두명을 증인으로 동반해야 한다. 증인은 3년, 혹은 5년 동안 신청인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만한 기간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기간 동안만 증인을 설 수 있다. 따라서 그 남은 기간은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 증인이 이민국에서 발급한 서류에 기입해서 공증을 받은 후 직접 이민국으로 우송해야 한다. 증인은 이민국에서 따로 증인할때나 또한 서류로 써서 공증을 받을 때 시민권 원본을 갖고 가야 한다.

- 이민국이 증인에게 묻는 문제는 :
- 1) 어디서 처음 만났나?
 - 2) 신청인이 영주권을 갖고 있었나?
 - 3) 언제 어떻게 만났나?
 - 4) 신청인의 주소는?
 - 5) 얼마나 자주 만났나? (매일, 매주, 매달, 매번)
 - 6)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여행한 일이 있나?
 - 7) 신청인이 법을 어기거나 투옥된 적이 있나? 있으면 왜? 언제?
 - 8) 신청인의 성품이 좋은가?
 - 9) 신청인이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나?
 - 10) 신청인이 미국법의 원칙을 믿는가?
 - 11) 신청인이 시민이 되어서 안될만한 어떤 이유가 있나? 있으면 왜?

1976년도 회비 납부자 명단 (연속)

105.	김종철	\$ 7.00	120.	이병익	5.00
106.	이현기	10.00	121.	오윤명	10.00 (76, 77년도분)
107.	김재호	20.00	122.	김병철	5.00 (77년도)
108.	김홍식	10.00	123.	곽종대	10.00
109.	Sebastian Kim	10.00	124.	Mrs. Armstrong	5.00
110.	김경학	10.00	125.	Bely Couch Kim	5.00
111.	김수림	10.00	126.	김기명	5.00
112.	문유기	5.00	127.	김두영	5.00
113.	이준모	10.00	128.	이주용	5.00
114.	김평걸	5.00	129.	정철식	5.00
115.	이수호	5.00	130.	Aramaki, 명숙	10.00
116.	이만득	5.00	131.	조영	10.00
117.	김학조	5.00	132.	George Matsumura	10.00
118.	박종분	10.00	133.	서두수	\$10 -
119.	이영호	10.00			

五大陸 食品店
FIVE SEAS

• Food Stamp 취급
• 주문 배수.

상점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30 7:00
토요일 - 일요일
10:30 6:00

57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Tel: 363-6850, 525-2785

남서지역

부동산

주력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토지

DEL BIANCO REALTY Inc.
9465 35th SW Seattle, Washington 98126

지인 김
JEAN KIM
Associate
(206) 932-1515

Res. (206) 932-3595

REALTOR

헨리 장 여행사

- 한국 왕복 \$ 653 (숙료 포함)
- 미국 국내 항공표 배달 가능.

9002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phone: 523-7057 (24 hrs)
Henry Chang Travel Service

썬

병진년을 보내면서 오 정숙

한 해가 또 저거 있다. 1976년의 삼백여날이 많은 감사와 미련과 소망을 남겨 주고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정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내가 얻은 가장 큰 결실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근본은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나는 금년에 다른 어느 해보다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애기를 이 여섯아기에 가장적으로도 바쁘지만, 아버가 출근한 뒤에 부랴부랴 오는 한인회 봉사부를 돕기에 전화로의 통역, 직접 거의의 통역일과 영어서류작성등을 맡았다.

한인회 일을 도우며 감사할 것은 안면이 없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애기를 분만하는 직후에도 크고 작은 일에 힘이 자라는데까지 힘껏 노력해 왔다.

나의 생활이 바쁘고 건강이 여의치 않은 지경에서의 정력과 시간속에서 이웃을 돕기에 나 자신을 먼저 극진히 위하고 아껴야 했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 아침에 성경을 읽어 그 날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어떤 때 너무 피곤하여 입안이 해어 쳐 고생한 나의 몸을 위해 충분한 영양섭취에 노력해 왔다. 어려서 부터 장모님의 가정에서 자랐으나 딸을 낳지 않아 부모님께 꾸중을 많이 듣고 학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라온 나였지만 성장하여 예수님과 나의 구세주 관계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움에 따라 나의 생활이 매일 새로워 짐을 느꼈다. 그러한 경로엔 중대한 기쁨의 생활과 사명의 생활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하나의 피조물로서 아름답지 못한 성격이나 버릇을 교정하기 주려 어려우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변정시켜 주시기를 요구 할 때 그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은 나의 그릇된 삶을 전혀 담당하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어 하늘 위로

승천하셨기에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고 계시기에 나의 생활에 미래와 목적이 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에게 신뢰하고 의존할 수 있는 좋은 벗,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시고 사는 모든 신도들에게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이고, 또 이제라도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길 원하는 각 개인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시다.

아제 몇 날 안 남으면 새해엔 봉사부 업무를 새 임원에게 인계하게 되나, 올해에 얻은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항상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생활 하길 기도 한다.

BARBARA ENTERPRISES

105-107 AVE NE, BELLEVUE WASH 98004
453-1955

개업

취급품: 수입보석류, 목공예품, 스포츠복

여러분의 편리를 돕고저 여러가지 상품을 준비하여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봉사」의 신념으로 개업하였으니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 연시 선물용품도 구비되었습니다.

Mrs. Cairns

영업시간: 月~土 11:00 ~ 6:00

생활안니

이번 달에는 시애틀 시립도서관 (1000 4th Ave.) 에 비치되어 있는 한국 서적에 대해서 안내한다. 2년전에 시립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20여권의 한국 책을 판문 출판사를 통해서 구입했는데 한국 책 애독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현재 83권의 도서가 본관에 비치되어 있다.

특별히 도서관측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관에서만 한국 서적을 빌려다 볼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각 분관에 서도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한국 도서 목록 안내서」를 작성하여 각 분관에 비치하였다. 목록은 6 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번호, 책 이름과 저자 이름, 그리고 도서 번호가 기입되어 있다. 제일 끝에 한국식 발음으로 쓰인 영문 한글을 읽지 못하는 미주분이 그 부인을 위해서 책을 빌려 갈 때 도움이 되도록 첨부한 것이다.

83권의 책 속에는 장편과 단편 소설집, 수필집, 시집, 동요집, 가요집, 고전 문학전집, 우리 한복 재봉법, 그리고 그림책등 다채로운 우리 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몇권을 예로 들면;

- 19. 이 강영 「한국 가요 150곡집」
784.8K
Y5H
Yi, Kang Nyöm
「Han'guk Kagok ilbaek-osipkokchip」
- 23. 한 용운 「한 용운 시집」
895.71K
H 19H
Han, Yong-Un
「Han Yong-un Sisip」
- 71. 이 광수 「사랑」
895.73K
Y5053 S
Yi, Kwang-Su
「Sarang」
- 79. 방정환 「소파수필전」
895.74K
P 193 S
Pang, Chong-hwan 「Sopa Supilson」

시립 도서관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시민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업은 아무리 이상적인 일이라도 예산이 잘라지게 된다. 시애틀 지역 각 식품점에도 서적 목록이 비치되어 있으니 모쪼록 한 번씩 보시고 많은 한인 교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한국 서적이 구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봉사부장, 헨리 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봉사부 부업인 「생활 안내란」과 「이민자 문제와 민원업무 안내」를 이용해 주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 한국어 방송 개시 -

파코 마 침례교회(조기선 목사)에서는 오는 1977년 1월 2일 저녁 7시 30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30분간씩 1360kc AM을 통하여 복음 방송을 와신톤주 서북부 일대에 전파케 될 것이라 한다.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어로 방송되는 이번 기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조목사께서는 준비에 매우 바쁘다고....

고포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란다

"CHRISTMAS AROUND WORLD"

매년 12월이오면 크리스 마스를 앞두고 와신톤주에 거주하고 있는 각국 민족 단체에서는 "세계의 크리스마스"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국의 민족을 소개하여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예술인 협회에서 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포 아동들의 고전무용과 노래를 12월 11일 토요일 McCurdy 공원 박물관에서 소개하여 많은 절찬을 받은 바 있다.



집 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Pioneer Realty
5505 UNIVERSITY WAY N. E.
SEATTLE, WA 98105

김 현 중 부동산 에서

(FRANK) HYUN CHOONG KIM

- * 무료봉사: 값싼 이자 를 알선 해드리고,
- * 무료상담: 정확한 감정 을 해드립니다
- * 취급종류: ◦주택◦아파트◦호텔◦도지
◦점포◦기타사업 투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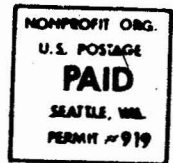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 0112

근 하 신 념

한인회 임원일동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7044 14th Ave. N. W. Seattle, WA 98117



Man Sog Hah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